

가문보다 국가...독립운동에 헌신한 '종가'

입력 2019.09.24 (21:55) 수정 2019.09.25 (00:34)

뉴스9(대구)



[앵커멘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에 앞장 선 종가를

재조명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3.1운동 당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태극기 등

종가의 소장품도

일반에 첫 공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김명환기자입니다.

[리포트]

종가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종가포럼이 올해로 12번째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권 회복에 헌신한
종가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었던 종가에서
가문을 보전해야하는 책임을 뒤로하고
직접 항일 독립 운동에 뛰어 든
종가의 숭고한 정신에 주목했습니다.

김희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나라를 잃자마자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간 대표적인 인물,
이상룡, 김창숙 선생의 길은 사실은 종가가 펼친 운동의 백미요 그래서 위대한겁니다.)[인터뷰]

포럼과 함께 열린
종가유품 전시회에서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 5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1919년 3월 만세운동 당시
안동 임동면 찻거리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오회당 남상룡 선생의 태극기와
광산김씨 탁청정공파의 문중에서
8.15 해방을 기념해 제작한 태극기는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장[인터뷰]
(종가들이 나라가 어려울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독립운동에 나서고 또 의병활동에 나
서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포럼에 앞서
대구경북 불천위 종가 종손 모임인
영종회와 경기 불천위 문중협의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종가문화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명환입니다.



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기자의 기사 모음

저작권자©KBS뉴스(<http://news.kb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